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송정섭 시몬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 십자가를 품에 안고 가는 길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오는 거지만  
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파릇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오늘 아침 따뜻한 한 잔 술과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

세상은 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그러나 세상은 살 만한 곳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 더 착하고 슬기로운 것을 생각하라.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것들 잇몸에 돌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김종길, 설날 아침에)

후원회원 여러분 및 소식지를 읽으시는 분들과 그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들과 조금 더 가깝게, 조금 더 진심으로 다가가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인 1월 초, 교정사목 센터 앞에 있는 목련 나무에 벌써 꽃망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철모르고(?) 나오는 목련을 보며 걱정이 앞섭니다. 아직은 이른 것 같은데, 나중에 꽃샘추위 오면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나 싶습니다. 심지어 가까워서 보니 진작에 낙엽이 되어 떨어졌어야 할 지난 나뭇잎들조차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낙엽과 꽃망울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고통이 있는 곳일지라도 그 옆에는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점을 말해주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고통이 되지만, 십자가를 '안고'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누구나 하나쯤 지니고 있을 나만의 십자가에서 고통을 넘어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은총입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 느껴질 때는 내려놓고 잠시 쉬었다 가고, 사랑하지만 만날 수 없는 이가 생각나거든 그리워하며 묵념아 울더라도, 이내 마음을 잡고 십자가를 품에 안으며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새해에는 꿈을 가지고 맞이해야겠다 다짐해봅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이 새해의 시작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와 사랑이 늘 함께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 2023년 각 교정시설 성탄 꾸러미 지원



2023년 주님 성탄 대축일을 맞이하여 12월 19일(화) 서울남부구치소(2,300개), 20일(수) 서울남부교도소(1,400개), 21일(목) 서울구치소(3,600개), 22일(금) 서울동부구치소(3,100개) 성인 수용자들을 위한 과자 꾸러미와 고봉중고등학교(250명)에 분식과 분류심사원(230명)에 햄버거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지친 마음에 조그마한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 서울구치소 최고수(사형확정자) 미사



2023년 12월 22일(금) 서울구치소에서 최고수(사형확정자) 성탄미사가 위원장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5명의 최고수 신자와 함께 자리한 봉사자들이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 고봉중고등학교 겨울신앙학교



2024년 1월 9일(화)~12일(금) 고봉중고등학교에서 겨울신앙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다 꿈을, 꾸다 꿈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봉중고등학교 겨울신앙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살레시오회의 신부님과 수사님들, 그리고 봉사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2024년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봉사자 피정



2024년 1월 16일(화)~17일(수) 1박 2일, 충청북도 제천 배론성지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봉사자 피정이 있었습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마태5,16)라는 주제로 김현남 메히틸다 수녀의 강의와 각 교정시설 봉사자 평가회로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한 봉사자들은 여유롭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피정을 보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이번 피정으로 인해, 2024년도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 ‘빛의 사람들’

임옥순 크리스티나 \_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봉사자

코로나가 조금씩 진정되어가던 어느 날 서울동부구치소 성가 봉사를 해달라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나 이제 아무 봉사도 안 할 거야! 자유로워지고 싶어! 얌매이고 싶지 않아!”

코로나라는 괴물로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미사도 중단되었으며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성당 봉사를 설 수 있음에 한편으로는 조금은 좋아했던 어리석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대표봉사자를 만났고, 신부님과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저러한 핑곗거리를 쏟아놓는 저에게 하신 신부님의 한마디 ‘뭣이 중헌디?’였습니다.

성당 봉사를 쉬고 있는 저의 화두가 ‘무엇이 중헌디?’ 였기에 내면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미사 첫날, 긴장되어 눈도 잘 못 맞추겠고 성가도 잘 안 나왔습니다. 저와는 다른 사람들일 거라는 마음 한구석 불편했던 괴리감은 미사 때 여기저기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우린 똑같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들며 몽클해지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부족하지만, 봉사할 수 있음에 저 자신이 많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젠 그분들도 우리와 다를 것 없는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사람들임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냥 저는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은 아주 미미한 봉사자이지만,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길로 이끄시려 온갖 정성을 쏟으시는 신부님과 대표봉사자의 사랑과 희생을 이제야 느끼고 찾았습니다.

흰옷을 입고 세례받는 수용자 자매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부디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 손 꼭 잡고 세상을 헤쳐 나가시길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수용자들을 위해 온갖 희생을 아끼지 않으시는 담당 신부님과 봉사자들, 그리고 미사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언제나 고생하시는 교도관들, 교정사목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후원회원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들일까요? 그분들이 진정 ‘빛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더 많은 분이 사회의 그늘에 있는 수감자들과 교정사목 봉사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따뜻이 바라보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과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 하나되어 즐기는 기쁨

이범상 사도요한\_ 신학대학 수련휴학(프락티쿰)

안녕하세요, 신학생 이범상 사도요한입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 실습하며 느낀 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까 합니다. “함께이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실습하는 동안 접한 많은 이들은 간혀있었습니다. 수많은 철문을 지나 빼곡하게 앉은 수용자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도, 마음대로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미사 제대를 차리기 위해 앞으로 향했을 때야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를 신기해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억울한 표정으로 그저 땅만 볼 뿐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강론에서 반복되는 ‘아기’라는 단어에 눈물을 샘물처럼 터뜨리셨습니다. 그들은 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고, 결국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몹시 내리던 날, 사형수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형수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미사와 기도를 바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 묘지 앞에 꽃을 바치려 갈 때 참 이상했습니다. 춥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구석지고 경사진 곳에 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느님 나라에서는 부디 따뜻하시기를, 그동안 만나지 못한 이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문 일부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그들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기에는 각박하고 차가운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이오니...’ 그들의 묘지를 났 없이 바라보며 연대적 책임을 무겁게 느꼈습니다. 지금껏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범죄에 대한 책임을요.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지난날을 조용히 한참 되돌아켜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주변에 어떤 이웃이 있나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수많은 사람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가족, 신부님, 수도자, 직원, 수용자, 교정사목 봉사자, 교도관, 송천동성당 신자 등 다양한 이들이 제 곁에 있습니다. 그들이 웃는지 슬퍼하는지 관심 없는 척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혹여나 그들이 말 못 할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를요. 한 수용자 형제님을 우연히 홀로 짧게 마주한 기억이 남습니다. 형제님은 제

게 농담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그러다 진솔한 한마디를 무심코 툭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구치소 생활이) 힘드네요.” 그 한마디에 그저 형제님을 지그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형제님 눈에 고이기 시작하는 눈물을 바라보며 그의 고통을 함께 안았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함께 있기에 웃을 수 있습니다. 성탄 전, 봉사자분들과 함께 캐럴을 수용자분들께 불러드렸습니다.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특송 전까지 엄숙하고 진지했던 분위기가 성탄 트리의 반짝이는 전구처럼 환히 밝아졌습니다. 만일 신부님, 봉사자 그리고 제가 그들을 위해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성탄 노래를 부르며 행복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간혀있는 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우리가 방문하여 그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관심을 지니는 일이라 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이기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군가 하느님과 이웃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이들이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감옥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느님과 이웃을 거부해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하느님과 이웃으로부터 상처받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감옥에 갇힌 이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길 응원합니다. 다른 한 종류의 감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감옥으로, 수용자분들이 있으신 구치소, 교도소입니다. 그들이 교정되어 하느님과 이웃의 따뜻한 관계 속으로 들어와 함께 어울릴 수 있길 빕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느님 빛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갑시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을 응원합니다. 하느님과 이웃의 따뜻한 사랑 온전히 받고, 그 사랑을 베풀 용기를 내실 수 있길 빕니다.





## 성가정에 드리는 기도

김성일 에라스토\_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장

지난 「성가정 축일」 미사를 봉헌하며 거룩한 가정에 대한 묵상 중 수용시설에 갇힌 수용자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를 바치었습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The Feast of the Holy Family of Jesus, Mary and Joseph」에서 보듯이 성가정(Holy Family)은 아기 예수, 동정녀 마리아, 성 요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단위이며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모든 것을 배우는 정서적·물리적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가정을 본받음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거룩한 가정으로 되어갑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직접 쓴 <세계 주교 시노드를 위하여 성가정에 드리는 기도>를 모든 신자가 바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이 기도문 중에서 “나자렛의 성가정이며, 다시는 가정들이 폭력과 배척과 분열을 겪지 않게 해 주소서. 상처받거나 걸려 넘어진 모든 이가 어서 빨리 위안과 치유를 찾게 해 주소서.”에 머무르게 됩니다.

가정 구성원의 실수, 실패로 수용시설에 갇혀있다면, 남아있는 가족을 위하여 누군가의 위안과 도움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기의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교회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외된 나그네, 병든 이, 갇힌 이를 돌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5:35-36)

천주교 교정사목위원회와 기쁨과희망은행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분리된 가정 그리고 그 구성원이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① 가족 사랑의 실천 ② 가족의 정신적·정서적 지지 ③ 인간다움의 희망과 치유 ④ 자비와 용서의 표현 ⑤ 회개와 변화 지원 ⑥ 가정을 위한 기도 ⑦ 복음 전파를 실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의 메시지는 인간의 회복과 거룩한 변화를 만들어 주십니다. 소외된 수용자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고 그 가정을 위한 기도를 청원하여 봅니다.

“그들이 울부짖자 주님께서 들으시어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주님께서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낮이 깃들면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 (시편 34:18-19)

## 담장 안 이야기

+ 찬미 예수님

미카엘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수산나입니다.

보내주신 미사통상문과 묵주기도 드리는 방법과 묵주기도, 가톨릭 기도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았습니다.

2024년에도 이곳에 오셔서 취업과 창업 교육을 진행해 주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많이 바쁘실 텐데 이곳을 잊지 않고 오신다니 정말 기쁩니다.

지난번 교육 때 같이 있었던 언니가 얼마 전에 세계를 받았는데 제가 대모가 되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보내주신 기도서를 받고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본부장님과 강의해 주셨던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가족과 떨어져 힘들음을 이겨내고 있는 이곳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시는 본부장님!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바쁘시더라도 식사 꼭 챙겨 드세요. 고맙습니다.

2024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가족분들과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

2023. 12. 10.

수산나 올림

\*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자매님이 기쁨과희망은행 본부장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입니다.  
자매님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 2024년 3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3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카카오채널

### ● 행사 알림

- 2월 5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2월 6일(화)~7일(수) 사회사목국 전체 사제 연수 / 성앵베르센터
- 2월 16일(금)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30차 이사회 / 교구청 3층
- 2월 21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2월 24일(토)~25일(일)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워크숍



###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3/12/16~24/1/15)

2023년 12월~2024년 1월에는 김미애, 김영현 라파엘, 김장원 니콜라오, 김종주 티모테오, 남순분 크리스티나, 박경선 비시아, 박은경 크리스티나, 부은숙 카타리나, 안복수 레지나, 정은하 요안나, 정혜향 세실리아, 최덕순 플로 라남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김동희 미카엘라, 김무숙 데레사, 김복실 로사리아, 김영덕, 김현진 힐라리오, 박태진, 배신자 히야친타, 원영미 안젤라, 이상만(상부사), 이정희 소피아, 정하자 젤마나, 황광연 비오, 논현2동성당, 익명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 방법

### 1.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신청’을 클릭 및 오른쪽 ‘모바일 후원신청 QR코드’로 신청

### 2.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기 / 후원사업부(02-921-5094)

### 3. 직접 은행에 신청하기

- 직접 자동이체 신청 시 후원사업부(02-921-5094)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아래 ‘후원 계좌’로 이체 등록
- 은행 방문 시 준비물(신분증, 도장, 통장) 지참 후 아래 계좌로 이체 신청



▶ 모바일 후원 신청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